

‘의료개혁특위’ 오늘 출범...의협·대전협은 참여 안기로

6개 부처 정부위원·민간위원 20명 구성 ‘4대 필수의료 정책’ 구체화 정부, 의사단체 참여 독려에도 의협 “증원 백지화 후 1대1 대화” 주장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연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불참을 선언해 의정 갈등의 해소 기미는 요원한 상황이다.

특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세부 내용을 협의하는 역할을 하는데, 정부와 의사들 간 갈등이 심한 내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의료개혁특위는 25일 오전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연 뒤 오후에는 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을 하며 회의 내용과 특위 출범의 의의, 운영 원칙과 방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들은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

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위원장에 노연홍(69)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을 내정하고 박지희 위원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노 회장은 보건복지부 등에서 일한 공무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 비서관을 맡았고 가천대에서는 메디컬캠퍼스 부총장으로 일했다.

정부가 아직 참여 단체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의대 증원을 두고 대립점에 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불참을 선언했다. 다만 정부는 이들 단체에 대해서도 계속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위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크고 작은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체”라며 “의협과 대전협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위의 의제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선 ▲필수 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선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개선 ▲대형병원 쏠림 해결과 효과적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 주제는 얼마든지 변경이나 추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위에는 다른 의료단체가 참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계의 핵심 단체인 의협과 대전협 등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실행력을 담보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노 위원장의 내정을 둘러싸고 의료계는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을 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정부는 부위원장에는 ‘의사’를 위촉할 계획이지만, 의정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적임자를 찾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위가 다룰 의제에 대해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증점 투자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당장 확정을 앞둔 의대 증원 문제가 다루어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증원 백지화’를 선언한 뒤 정부와 의사가 일대일로 만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며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24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교수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백지화 선언 없이 정부와 의사가 참여하지 못했다. 대화를 제안했지만, 의료계의 거절로 성사되지 못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 일시 중단되나

공사비 급증에 기존 예산 2배 넘는 3000억 필요 분석 예산 추가·건립계획 조정·사업 일시 중단 등 대안 고심

광주시가 공사비 상승 등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 사업 일시 중단 등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제2전시장은 현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차장 부지 1만8932㎡에 총사업비 1461억원을 들여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4만6000㎡ 규모로 신축 예정이다.

광주시는 호남 대표 마이스(MICE) 시설인 김대중컨벤션센터가 가동률 70% 이상 포화 상태를 보임에 따라 대형 국제 행사 유치를 위한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공모를 거쳐 설계에 착수했으나, 지난 2월 설계 용역 등을 중단했다. 자재·인건비 공사비가 급증하면서 기존 예산으로는 건립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기존 예산의 2배가 넘는 30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광주시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느냐, 예산에 맞춰 건립 계획을 조정하느냐, 재정 상황을 고려해 사업을 일시 중단하느냐 등 3가지 대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시는 공사비를 절감하고자 콘퍼런스 공간을 줄이

고 주차장을 지하가 아닌 지상이나 옥상 등에 조성하는 방법도 검토했으나, 효율성 등에서 부정적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예산을 줄여 시설 등을 축소하기보다 개관이 늦어지더라도 규모와 수준을 갖추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견해에 힘이 실리면서 일시 중단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이탈리아 출장에서 밀라노 가구 박람회를 참관한 강기정 시장은 “많은 인파에 놀라고, 전시장의 크기에 또 한 번 놀랐다”며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져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 시장은 “현장(밀라노)에서 본 경험을 말하자면 ‘지을 때 잘 지어야 하겠다’, ‘짓기 위해 지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깊어졌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40억 투입 e-모빌리티 필요시설 설치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부품 국산화·생산비 절감 등 지원

전남도가 영광 대마산업단지에 40억원을 투입해 자동차용 내외장재 및 프레임 부품 가공을 지원할 중대형 시설장비인 용접용 유니버설 지그, 로봇용접기, 평판형 레이저가공기, 절곡기 등을 구축한다. 관련 기업들의 비용 절감과 함께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이(e)-모빌리티 수출활성화 공동 생산 기반 기업 지원’ 사업에 선정돼 지역 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부품 생산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1년에는 ‘초소형 이-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지원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돼 중소기업의 부품 생산체계를 갖춘 전남도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모빌리티 분야 기반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지역 기업의 부품 국산화와 생산 비용 절감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소형 이-모빌리티를 집중 육성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동남아의 이-모빌리티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제4차 민관 합동 수출 확대 대책회의를 통해 소형 이-모빌리티의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도 국내 소형 이-모빌리티 기업이 2024년 해외 수출 5000만 달러, 4만대 이상의 수출실적 달성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공모 선정과 함께 지역 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해 ▲2024 모빌리티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이-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 ▲지역 기업 중심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전국 확대

30일 DJ센터서 전라권역 설명회...시설법인·장애인 학부모 대상

광주시 시범 사업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설·법인, 발달장애인 부모 등을 대상으로 전라권역(광주·전남·전북) 설명회를 연다.

광주시가 2021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후 2022년 국정과제로 선정됐고, 발달장애인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6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자해·타해 등으로 기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제도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용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도전 행동의 심각성 여부·일상생활 능력·의사소통 능력·지원 필요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통합돌봄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24시간 돌봄 외에 개별형·그룹형 주간 활동 서비스가 추가된다.

복지부는 오는 30일까지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용자를 신청받을 예정이다.

남미선 광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발달장애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리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국내 취업자 중 대졸 이상 학력자 사상 첫 50% 돌파

지난해 우리나라 취업자 중 대졸(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가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 석·박사 비중이 중소기업의 3배가 넘어 고학력자의 대기업 쏠림 현상은 심화했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취업자 2841만6000명 중 대졸 이상 학력자는 1436만 1000명으로 50.5%로 집계됐다. 이는 초대졸(전문대 등 초급대학 졸업), 대졸, 대학원졸(대학원 졸업)을 합한 것이다. 대졸 이상 비중이 절반인 50%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이 수치는 2003년 30.2%에서 꾸준히 높아져 2011년(40.0%)에 40%선을 돌파했고 2020년 48.0%, 2021년 48.7%, 2022년 49.3%에 이어 지난해 처음 50%를 넘었다. /연합뉴스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과정)

- 일 시: 2024. 3. 13(수) 오후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푸리보석2층)
- 수강료: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4. 3. 6(수) 오후7시
- 장 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전기비법 대공개
- 기강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남골담 및 수목장 수목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공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당 회사는 2024년 4월 16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2024년 4월 18일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사오니,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게제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주식회사 신나무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55, 4층 402호 (학동, 상정빌딩)
청산인 박병민

합병공고

주식회사 용지(갑)와 주식회사 위즈에듀케이션(을)은 2024. 4. 22. 각 개최한 주주총회 결의(갑)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존속하며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 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본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5일
"갑" 주식회사 용지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 54(양산동)
대표이사 박종식
"을" 주식회사 위즈에듀케이션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 54(양산동)
대표이사 박종식

안 팔리는 부동산 교환전문

010-3605-5000

지분임야 바로 삽니다

010-5962-3900

군산시 수송동 7층 매매

메디컬빌딩
840㎡ 비박628㎡ 대형건물
약국, 의료기관 4개입주

월 3천4백만원
매가78억
은행 36억5천.보9억4천포함

인수가 **32억**

010-3646-8700